

유치장은 국립 선방, 모두가 부처님

부경포교사단 대세지팀, 5년째 유치장 법회

“짜늘한 철창 안은 온통 불편한 것 뿐이지만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준 선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수행공간은 다름 아닌 유치장이다. 한국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범법 사실이 중대한 경우 유치장에 구속 수감하고 있다. 고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고, 유치장은 재판과정 중인 피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유치장을 국립 선방이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의 기회로 맞으라고 울기를 복돋는 이들은 바로 부산경남포교사단 소속 경찰포교 대세지팀장 정본남이다.

2월 6일 오후 3시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대세지팀의 정기법회가 열렸다. 매월 1·3주 토요일마다 유치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유치장법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10여 명의 포교사들이 빵, 과일, 음료수, 향, 단주, 불교서적 등의 공양물을 준비해 유치장 한가운데 향을 사르며 이동식 법당을 연다. 이때 전달이 아니라 ‘공양을 올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유치인들이 어떤 범죄 혐의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역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최광재 대세지팀 前 회장은 “부처님이 45년간 살면서 법을 설하신 궁극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 입을 깨달으라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세상 속 인연에 이끌려가다 보니 본래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찾아라. 우리는 부처다”라고 말했다. 법회는 예불문,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보왕삼매론>,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40분간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세지팀은 불교가 생소한 유치인을 위해 “삼귀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함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 발원문은 “육신과 성념,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모두 무거운 업의 짐을 털어버리고 해탈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발원을 진지하게 낭독했다.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대세지팀 전성준 포교사는 “지장보살은



부산경남포교사단 대세지팀의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법회 모습. 왼쪽부터 세번째가 정본남 팀장.

지옥에 가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이는 경찰의 업무와도 닮아 있다. 비록 범법자를 체포하는 일을 하지만, 진심을 나눠 공감하고 친구가 될 때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세지팀은 <관세음보살 이야기>(자자 정찬주) 6권을 유치장에 기증했다. 유치장 내에는 유치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장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 중 2/3 이상은 이웃종교인들이 봉사활동 후 놓고 간 성경책 및 종교서적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비해 불교서적은 천천히 살피며 10권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표지가 낡아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다. 또, 이웃종교에서는 매주 토·일요일이면 하루에도 수차례 인근 교회에서 조를 편성해 수시로 유치인을 위한 예배를 열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경승단이 조직돼 있지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나 신년하례회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한 활동이 미비해,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전직 경찰간부로 퇴임 후 포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대세지팀 이민규 포교사는 “예전 경찰에 근무하는 동안 이웃종교에서는 유치인들을 위한 예배와 기도를 하루에도 수차례 다녀갔지만 불교계에서는 단 한번도 온 적이 없어 아쉬웠다. 이때부터 유치인을 위한 포교에 전력을 세우 포교사단 대세지팀에서 전국 최초로 유치장법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지역 경찰서 중 유치장이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하지만, 한달에 2번 한 경찰서에서라면 하는 실정이 안타깝고, 교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 도중 10명의 유치인 중 2명은 석방돼 개운한 표정으로 두꺼운 철문을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유치인이 철문 안에 갇혔다. 법회 내내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려 외면하던 여자유치인은 어느새가 법회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

아 무심한 척 눈을 감고 법문 내용을 경청했다. 이들을 향해 포교사들은 차가운 철창 너머 부처님들에게 법문집과 책을 살피시 건넸다.

최광재 포교사는 법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 아닌 안에 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면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많이 베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 633-301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교로 보는 정신건강

부산불교교육원, 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현대인의 고민거리를 불교적 관점으로 풀어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좌를 개설한다.

박성봉 박사(정신과 전문의·조계종 국제포교사)가 강의하는 강좌는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5주 동안 이어진다. 강의 주제는 3월 2일 ‘격정거리! 불교와 무슨 관련이 있나?’, 9일 ‘꿈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 16일 ‘인터넷게임에 빠진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23일 ‘격정거리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명상방법은?’, 30일 ‘격정

거리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론?’ 등이 차례로 마련된다.

박성봉 박사는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더 좋은 상황을 원하는 분, 고민상담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 현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수강하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3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선착순 30명에 한한다. 수강료 수입 전액은 여래사에서 실시하는 말반전 지원 사업에 쓰인다. (051)466-4080

박지원 기자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 이어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에 자비손길

설을 맞아 부산지역의 사찰과 복지관이 이웃에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쳤다.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봉)은 2월 6일 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부산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고, 지역민과 화합을 도모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 및 관장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새터민 합동 차례, 설 선물 전달식, 흥겨운 전통놀이 한마당, 통일떡국 나눔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차례는 2007년 전입한 새터민 이용주 씨를 제주로 전통 유교 방식으로 치러졌다. 행사에 참가한 100여 새터민은 북녘에 홀로 두고 떠나는 부모님과 탈북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포들의 넋을 기리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례를 지냈다.

복지관은 이날 전달된 생필품 140 상자 및 떡국떡 80상자를 100여 새터민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새터민은 “북에 있을 때는 짝이 귀해 떡국을 케녕 쌀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진한 육수로 정

성껏 요리한 떡국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관장 서봉 스님은 “부산시에는 700여 새터민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겪으며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공산주의와 다른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어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모인 새터민들은 각자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님을 기리고 맛있는 떡을거리로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자”고 밝혔다.

용호중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10일 용호문화센터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새해맞이 떡국상을 대접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1시 판소리 축하공연 을 시작으로 이춘성 관장의 인사말, 축사, 진학장학생 장학금 및 설맞이

선물 전달이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행사 후 복지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따로 방문해 직접 선물을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해진 설맞이 선물세트와 장학금 등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400세대 에 전달됐다.

이에 앞선 3일, 대한불교승가중(종정 월인)은 진주시 이반성면을 방문해 성금 150만원과 라면, 차돌, 수건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후원물품은 이반성면 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어려운 세대에 전해졌다.

종정 월인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과 생필품을 마련해, 자비의 마음을 함께 담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본근 이반성면장은 “승가중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승가중은 2009년부터 진주시 이반성면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진주시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박지원 기자



전두환 前 대통령, 부산지역 사찰 신년하례

전두환 前 대통령은 2월 5일 설을 앞두고 신년하례차 부산 지역 사찰들을 잇달아 방문했다. 전 前 대통령은 선철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를 시작으로,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등을 차례로 찾았다. 사진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범어사 도량을 안내하는 모습.

박지원 기자



상용상인특허회수
■제품명: 순금선불명반불대
■재질: 대한민국 순금상자
■높이: 110cm
■원통폭: 45cm
■발판직경: 30cm
■무게: 25kg

업장소멸 법률탈(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률탈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 불자의 손길이 연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전생의 묶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강경을 법률탈에 각각 다른 숫자로 봉장하여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률탈 특징**

1. 대한민국 수제품으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첨자 법률탈로 탄생하였습니다.
2. 부처님 한 분 한 분 1,080분의 명찰을 특수 투명 케이스에 넣어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봉장할 수 있어 사찰경제 걱정없는 작은 천불전이 되는 다목적 법률탈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